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육짬뽕이 늘어난 이유

요리사들은 새벽에 장을 보러 많이 다닌다. 아무래도 생산장을 증시한다. 생선은 좋은 물을 보자면 직접 가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요리사 생활을 하면서 어물, 생선의 위기를 크게 느낀다. 장이 점점 썰렁하고 양이 적어졌다.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다. 건강을 위해 수산물을 많이 먹으라고 국가 의료체계가서 독려하는 나라이고, 과거에는 값이 싸서, 요즘은 미식으로도 수산물을 소비한다.

수산물은 이제 제철을 만난다. 봄이 지나면 어황이 변변찮아지고, 봄은 유독 산란철이 많아서 금어기가 길다. 여름도 마땅한 주력 어종이 없다. 가을 초입에 고등어와 전어, 낙지, 굵어진 오징어를 시작으로 수산물 사정이 나아진다. 올해는 영 분위기가 안 좋다. 서울의 요리사들은 노량진과 가락시장 두 곳의 수산물시장에 나간다. 노량진에 아는 거래처 도매 사장님이 있어서 새벽에 문자를 보내 주시곤 한다. 음, 장이 안 좋아, 이런 느낌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문자를 쭉 보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조금'이다. "창어 조금, 오징어 조금, 갈치 조금, 고등어 16미 조금...다" 다 조금이라고 하신다. 물량이 없다는 소리다. 기가 막힌다.

대중적인 생선이다. 20년 전에만 해도 제철이 되면 수산시장 바다에 생선이 굴러다닐 정도로 부려 놓고 장사를 했다. 장 보러 나온 상인들이 통로를 막은 생선 상자를 발로 차고 지나다녔다. 이제는 '턱도 없는' 일이 되었다. 다 귀하고 귀하다. 그까짓(?) 오징어, 고등어가 좀 나왔다고 상인 얼굴에 희색이 돈다. 전화를 걸기도 한다. "오늘 고등어가 좀 물이 좋고 양이 되는데 미

리 잡아 놓을까 사장님?" 이런 전화다. 기막히지 않은가?

과거 가을 고등어는 양이 많아서 한 상자를 사면 한 상자를 더 없어 가져가라고 한 적도 있었다. 빨리 상하는 생선이니 단골한테 그냥 준다든 것이었다. 다 옛말이다. 흔한 대중 수산물의 하나인 오징어는 얼마나 양이 부족한지 국산 오징어 쓰기가 어렵다. 저렴한 게 파는 중국집에서 쓰는 건 원양 중에서도 작업 오징어라는 것도 있다. 오징어 모양과 맛이 안 나오니, 이리저리 손을 봐야 팔 수 있는 오징어라는 뜻이다. 홉볼트 오징어니, 페루산이니 하는 수입 오징어의 세계가 넓어졌다. 짬뽕에 넣을 해물이 없어서 차돌짬뽕, 육짬뽕이 유행한다고도 한다. 육짬뽕은 돼지고기를 볶아서 만드는 짬뽕이다. 짬뽕은 원래 육짬뽕이 원조다. 고기로 볶는 것이 100년 전의 짬뽕이었다. 그러다가 풍부한 해산물을 써서 한국 특유의 짬뽕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제 다시 육짬뽕으로 돌아가고 있다. 독자분들도 잘 보시면 느껴질 것이다. 대부분 해물짬뽕에 먹갈 게 없고, 육짬뽕 파는 집들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해물, 수산물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수많은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바다의 오염, 어획량의 증가, 불법 어획, 무계획적인 어획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기술 발전은 좋은 일이다. 한데 어획 기술이 발달하여 문제가 된다니 이처럼 아이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다. 고깃배가 어획을 포기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있다. 잡을 고기가 없으니, 이제 그만둘 선주들은 갈아엎으라는 뜻이다. 하기가 배탈 사람도 없다. 외국인인 그나마 받쳐 주고 있지만, 월급 주고 기름값 빼면 적자가 흔한 일이

됐다. 배 모는 선장님 속이 다 타들어 간다. 2050-2060년이면 바다에서 건질 수산물은 없어진다는 게 가장 극단적인 경고다. 뭐라도 대책을 세우고 있었지만, 당대는 어찌면 태평하다.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일까, 미래세대에 우리가 없어 줄 부담에는 수산물의 어두운 미래도 포함된다.

가을이 되면 제일 만만한 생선 중에 삼치가 있었다.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시중 백반집 구이 반찬은 고등어 아니면 삼치였다. 5000-6000원 하는 밥집에 아마도 이런 생선이 없었으면 필로 반찬을 냈을까 싶다. 고등어, 삼치, 오징어가 3대장이라 부를 만한 저렴한 대중 생선이 아니었다. 이제 삼치도 비싸다. 어린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만 크면 값이 막 된다. 옛날처럼 막 구워 팔 수 있는 재료 가격이 아니다.

홍합은 어찌나 흔하던 포장마차나 선술집에서 공짜 안주였다. 요즘은 거의 돈 받는다. 횡집이나 야식집에서 공짜로 구워 주던 풍치는 제철에도 거의 볼 수 없고 있다 해도 거의 수입이다. 양식하는 홍합도 생산비가 올라서 가격이 덩달아 뛰었다. 바지락도 물론이다. 대도시 사람들이 생선 하는 집에 한잔하러 가면 광어회 말고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회를 시키면 이런저런 해물을 곁들이러 내는 게 우리나라 횡집의 전통인데, 고기와 치즈튀김을 주는 집도 봤다. 기호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널만한 해물 사정이 안 좋아서다. 바다 사정이 바뀌는 건 어찌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 그리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음식칼럼리스트>

의료칼럼



김재봉 신세계인과 원장

휴대폰과 TV, PC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면서 눈의 피로감이 커지고, 시력마저 떨어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나빠진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과 렌즈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불편함으로 시력 교정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안경 착용의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력 교정술은 1950년대 스페인 안과 의사 조세 바레큐어가 초정밀 각막 절삭기와 굴절교정 각막 형성술을 학계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초창기 그의 연구는 각막을 일정 부분 잘라내도 안정적으로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규명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러시아 스파 로슬라프 페도르프가 방사상 각막 절개술을 개발해 시력을 교정했다. 이후 주변 조직에 열손상이 없는 자외선 엑시머 레이저가 발견되면서 각막 수술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87년 세계 최초로 제1세대 라섹 수술이 시행됐고, 1990년에는 제2세대 라식 수술이 시행됐

스마일 수술

다. 기본적으로 라식과 라섹은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절삭하는 것이다.

시력 교정술은 각막의 두께와 근시의 정도에 따라 시술법이 달라진다. 각막이 두꺼운 경우는 라식 수술을, 각막이 얇으면 라섹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가능하다면 직업과 수술 후 휴식 기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어려운 고도 근시일 때는 스마일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이 대안이며, 건조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필요할 때는 스마일 수술이 적절하다.

이 때문에 최근 스마일 라식 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일 수술은 칼자이사의 비주맥스 프로젝트 2002를 시작하면서 개발돼 2006년에 이르러 라식, 라섹을 넘어선 차세대 시력 교정술로 각광받고 있다. 스마일 라식의 정식 명칭은 릴렉스 스마일로 이때, 스마일이란 'Smail Incision Lenticule Extractin'의 약자로 '각막 최소 절개술'이라는 의미이다.

스마일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막 절삭량이 기존 시력 교정술에 비해 크게 줄었고, 빨라진 수술 시간으로 안정성도 높아졌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한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500만 회이 넘게 시행되며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절개하는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충격에 대한 견고함은 물론 건조증, 빛 번짐, 혼탁, 근시 퇴행 등 부작용도 훨씬

적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내 회복해 다음날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라식은 약 20mm 이상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지만 스마일 라식은 각막 절개량을 1-2mm까지 줄여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개인의 눈 상태에 적합한 LOW 에너지 사용으로 스마일 수술 중 발생하는 가스 기포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렌터콜 표면도 매끄럽게 해 각막 손상을 방지하고, 시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구 건조증이나 수술 후 빛 번짐 가능성 등의 부작용 발생 확률을 낮춘 것이다. 수술 다음 날부터 근거리 작업은 물론 가벼운 운동과 화장도 가능하다. 또한 각막 두께를 만들지 않아 라섹과 동일하게 외부 충격에 강하며, 신경 손상이 거의 없어 수술 후 안구 건조증 등 부작용 발생률도 낮다.

시력이 매우 좋지 않거나 각막이 얇아 라식-라섹이 아닌 렌즈 삽입술만 가능했던 초고도 근시 환자들에게 스마일 수술은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고도 근시인 12.5디옵터(근시·난시 합도수)까지 시력 교정이 가능해 고가의 렌즈 삽입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 수술은 미세한 절개창을 통해 수술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의료진의 숙련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병원을 선택할 때는 수술뿐만 아니라 검사 방법, 수술 장비, 담당의사의 임상 경력, 사후 관리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재성과 장석천

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책임 비서 김재봉, 혁명에 몸 바친 김사국·사민 형제 등 '잊힌 사람 전문가'의 서술담에 열전은 그 목차에서부터 전공자가 아니라면 낯설고 어색한 사람과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 속에 눈길을 끄는 두 사람이 있다.

장재성과 장석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1919년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쟁이라 평가받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두 주역. 그러나 현대사의 질곡과 함께 '역사의 절창' 안에 갇혀버린 비운의 독립운동가.

러시아와 중국 혁명 과정에서 전 세계를 휩쓴 사회주의를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체제를 극복하는 저항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자 했던 두 청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를 기획한 유능한 독립운동 지도자였다.

역사의 전환점은 반드시 계기를 필요로 한다. 과거 3·1운동이 국내외 독립운동 진영의 대단결을 가져오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을 가속화했음을 상기한다면, 광주학생독립운동 전국화의 온전한 성공은 체포와 고문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1920년대 후반의 독립운동 정세를 일거에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장재성과 장석천의 이름이 갖는 무게감과 지금과는 꽤 다를 터.

아니면 한편으로 지나치게 일관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서 문제가 되었을까?

장재성은 광복 후 1946년 민족주의민족전선 전남대표, 48년 남북연석회의 해주대회 등 줄곧 비합법 공간

에 머물렀다. 그러다 결국 49년 남로당 가담 혐의로 사찰계 형사들에게 체포돼 7년 형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했으나 6·25전쟁 중 다른 정치범 수감자와 함께 총살되었다고 한다.

장석천도 형무소를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1932년 적색노조 사건으로 두 번째 투옥된 그는 경성지법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문으로 중병에 걸린 채 보석으로 출옥, 35년 10월 18일 자신의 청춘을 바친 광주학생운동 발상지 광주고보 인근 자택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둔다. 장재성과는 달리 광복 이전 사망으로 건국포장과 애국장이 추서된 것이 차이인 차이일 뿐, 역사 속 복원은 아직 한참 멀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광복 77주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G7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흔들 수 없는 품격 있는 나라의 새 역사는 '포용'에서부터 시작한다. 광주학생운동의 두 지도자를 포함해 사상의 편린으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결측한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학계와 시민사회 중진들로 구성된 보훈처의 자문기구 '국립 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그때 누구보다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다면, 광복 후 행보는 평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이제 우리 역사 속 '주류' 독립운동가로 당당하게 복원해 보자. 이제 그럴 때도 되었다.

社說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혁신도시 위축 우려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여파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본사 인원이 반년 새 2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공기업의 인원은 780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5% (197명)나 줄어 전국 열 개 혁신도시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전국의 이전 인원은 같은 기간 4만 5626명으로 0.1% (50명) 늘었다.

나주의 감소 폭이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이전 인원이 급감한 탓이다. 한국전력 본사 인원은 1724명으로, 6개월 새 258명(13.0%)이나 줄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9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4명), 한전KDN(10명) 등 일곱 개 기관도 인력이 감소했다.

공공기관 인력 감소는 도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 빛가람동 주민등록인구는 3만 919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0.1% (55명) 줄었

다. 병의원도 세 곳이나 문을 닫아 정주 여건은 되려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혁신 방침에 따라 한전 및 전력그룹사 네 곳은 533명, 한국농어촌공사는 191명, 한국농수산물품유통공사는 18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채용 규모가 불투명해져 지역 인재들의 취업 전선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혁신과 효율화가 불가피하다 해도 균형 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뒷걸음질하게 해선 안 된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정주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력 조정에도 지역 인재 채용 규모는 줄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겨울 불청객' 조류독감 유입 철저히 차단해야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경북의 한 중소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남천안 철새도래지에서 포획된 야생 원앙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데 이어 가금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경북 예천군 중요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환원이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경남 김해 산란계 농장 이후 6개월 만의 확진 사례다. 앞서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 이어 15일에는 전북 정읍시 동진강과 인천 옹진군 백령호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환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의 오리 사육지인 전남 농가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정밀 검사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가금 계

열화 사업자 및 생산자 단체와 '정적 전남 사수'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증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보다 보름가량 빨리 야생조류에서 AI 환원이 발견됐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AI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I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려면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가금 농장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키자'는 자세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과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추수기와 야생조류 도래 시기가 겹쳐 농경지에서 가금 농장으로 고병원성 AI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장 종사자는 물론 주민들도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행정과 산업계, 생산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면 지난겨울처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온다 리쿠의 소설 '꿀벌과 천둥'은 가상의 요시가에 국제피아노 콩쿠르가 소재다. 벌을 키우는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자유롭게 음악을 하는 16세 소년 가자마진, 천재 소녀로 불렸던 에이덴 아야 등 전 세계 신예들이 1·2·3차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낸 소설은 흥미롭다.

책의 챕터도 '참가 등록' '예선' '본선' 등 경연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콩쿠르가 소재이다 보니 책에는 술한 피아노 곡이 등장하고 참가자가 연주한 레퍼토리로 일목

하루키와 클래식

요연하게 보여 준다. 소년의 인기에 걸연곡 17곡이 담긴 음반이 나왔고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실제 일본에서 3년마다 열리는 하바마스 콩쿠르를 네 차례나 찾아가는 등 발품을 팔았다. 두 번째 관람했던 콩쿠르 우승자가 바로 조성진이었고, 그 인연으로 작가는 조성진의 일본 공연 팸플릿에 글을 쓰기도 했다.

소설 속 클래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그의 작품에서 음악은 큰 역할을 하고, 독자들에 깊은 인

상을 남긴다. 그래서 '당신과 하루키와 음악' 등 관련 책이 많이 출간됐고 책에 등장한 레퍼토리만으로 꾸러진 음악회나 컴필레이션(편집) 음반도 많다. 하루키 본인도 486장의 소장 음반을 소개한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를 펴내기도 했다.

아마도 2009년 즈음 국내에는 덜 알려졌던 야체크의 '신포니아'를 한 번 들어 보려했던 사람이라면 하루키의 'IQ 84'를 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소설 첫 대목에서 여주인공 아오마메가 택시

안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는 장면을 읽고 공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리스트의 피

아노곡집 '순례의 해' 역시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읽다 보며 자연스럽게 찾아 듣게 된다.

하루키 작품 속 클래식을 라이브 연주, 해설과 함께 듣는 공연이 열린다. 오는 22일과 26일(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루키와 클래식'이다. '노르웨이의 숲' 등에 등장하는 바흐·슈베르트 등을 만나는 자리로 '하루키 월드'에 빠지는 즐거움 경험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김동환 광주시 메시지기획 팀장

최근 출간된 도서가 세간의 화제다.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다룬 김훈 소설가의 '하얼빈'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고, 평소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은 강기정 광주시장도 간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추천할 정도다.

'하얼빈'이 대형 출판가와 서점가를 중심으로 화제에 오르다면,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고 있는 책도 있다. 성균관대 사학과 임경석 교수의 신간 '독립운동 열전'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하얼빈이 워낙 잘나가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심리라고 할까? 어느덧 'SNS 베스트셀러' 독립운동 열전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실 임경석 교수는 한겨레21 '임경석의 역사극장'을 통해, 또 과거 저술한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과 같이 '잊힌' 역사인 진보적 독립운동을 대중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상당한 필력의 역사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입소문을 타는 것도 당연지사. 김립 암살사건, 다나카 저격범 오성훈의 탈옥, 조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